이란 지정학 긴장 고조, 사모시장 불안에 약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리스크 경계감 확대로 변동성 키운 증시

- 미 증시는 DOW -0.54%, S&P500 -0.28%, NASDAQ -0.31%로 3 대지수 하루만에 약세 전환, Russell +0.24%은 소폭 반등
- AI 발 우려 여전한 가운데, 사모신용시장 불안까지 가세하며 시장변동성 확대. VIX +3.11%
- 미-이란 지정학 리스크 영향 WTI +2.4%, 금 장중 +5.7%까지 강세보이다 보합권 마감. 이란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, 트럼프 대통령이 10 일 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힌 것이 원인

블루아울發 사모신용·대체자산운용 유동성 우려

- 블루아울캐피탈(OWL)은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신용펀드 OBDC Ⅱ 분기별 환매 영구 중단 및 대출회수, 자산 매각때마다 간헐적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청산형 구조로 전환
- 해당 조치는 OWL 이 약 $14 억 규모의 대출자산을 장부가 수준 매각, 그 중 OBDC Ⅱ에서 약 6 억달러 처분하는 등 투자자 환급과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과 맞물림
- 사모대출 유동성 및 자산관리 리스크 경계 확대로 글로벌 사모신용, 대체자산운용주 동반 약세

경기지표는 엇갈린 방향성, PCE 물가 대기

- 2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16.3 서프라이즈(컨센 7.5), 2 개월 연속 확장세. 다만 고용지수는 9.7→-1.3 위축전환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.6 만건, 컨센(22.5 만건) 하회
- 25 년 12 월 무역적자 $703 억로 전월비 적자폭 확대, 컨센($555 억) 크게 웃도는 적자규모. 연간 무역적자 $9,015 억, 2024 년 대비 0.2% 개선에 그침
- 다음날 발표되는 12 월 PCE 물가에 주목하는 가운데,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금리가 중립수준에 근접하며 추가인하 여지를 제한하는 발언

특징주: 블루아울 사태에 사모시장 유동성 경색 우려 확산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OWL	블루아울캐피털	-5.9%	리테일 대상 사모 채권 펀드(Blue Owl Capital Corp Ⅱ)의 환매 중단 소식에 주가 하락. 블랙스톤(-5.4%), 아폴로(-5.2%), 아레스(-3.1%) 등 동반 하락
WMT	월마트	-1.4%	호실적 발표했으나, 1 분기 및 '27 회계연도 가이던스가 예상치 하회하며 주가 하락. 기록적 매출에도 아마존에 글로벌 1 위 매출 왕좌를 내줌
AMD	AMD	+1.6%	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인 크루소가 자사 AI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$300M 규모의 대출 보증 제공 예정 소식에 주가 상승.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원동력. 다만 일각에서는 벤더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도 존재
OXY	옥시덴탈페트롤리움	+9.4%	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, 호실적 발표하며 주가 상승. 적극적인 주주 환원 및 재무 구조 개선도 지속
BKNG	부킹닷컴	-6.1%	2 분기 실적은 양호했으나, 비용 부담(높은 메모리 가격 및 인수합병 통합 비용)으로 인한 하반기 수익성 악화 우려에 주가 하락